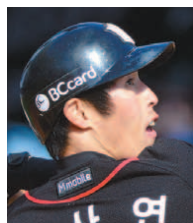


김사연 결승홈런...kt 1군 창단 첫승 축포

▶ 플레이 | kt 김사연

NC전 137km 직구 받아쳐 좌측담장 넘겨
퓨처스 북부리그 홈런왕 출신 '화력 시위'



"(김)사연이가 좋다. 입단 후 퓨처스리그를 거치면서 목격의식이 강해졌다. 올 시즌 상당히 기대된다"고 칭찬할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족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죽을힘을 다해 뛰고 있습니다."

kt 김사연(27)이 1군 진입 첫 홈런포를 쏘아 올리며 팀에 첫 승리를 안겼다. 그는 11일 마산구장에서 열린 NC와의 시범경기 4회 선두타자로 나와 NC 박민석의 시속 137km짜리 직구를 받아쳐 좌측담장을 넘겼다. 0-0의 팽팽한 균형을 깨는 솔로홈런이자 팀 1군 창단 첫 승리를 결정짓는 결승포였다. 이번 야

김사연은 경기 후 "라인드라이브성 타구여서 열심히 뛰다보니까 홈런이라는 사인이 나오더라. 그래서 알았다"며 열렬하게 하고는 "1군 진입 첫 안타, 첫 홈런을 쳤지만 지금 의미를 두고 싶지 않다. 시즌 들어가서 이 타격

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긴장의 고삐를 조였다.

아직 야구팬들에게 김사연은 낯선 이름이지만 그는 지난해부터 올 시즌 활약을 예고했다. 퓨처스리그에서 타율 0.371, 23홈런, 72타점으로 맹타를 휘두르며 북부리그 홈런왕을 차지한 바 있다. 장타율이 무려 0.647에 달했다. 그 비결을 묻자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는 "원래 타석에서 방망이를 100%로 돌린다. 부모님께 좋은 걸 물려받은 덕분에 (공이) 잘 맞으면 (펜스를) 넘어간다"며 웃고는 "지금 나는 내가 어떻게 쳐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공보고 공치기'다. 경기에 뛰는 것만으로 감사해서 미친 듯이 때 달리고 있다"고 간절한 마음을 드러냈다.

반드시 잘해야 할 이유도 있다. 가족과의 약속 때문이다. 김사연은 "한화에서 방출된 뒤에 야구를 그만두려고 했었는데 그때 가족과 약속한 게 있다"며 "3년 안에 야구선수로 뛴 이루지 못하면 그만둔다고 했다. 올해가 딱 3년째다. kt는 나에게 주어진 기회다. 기회를 잡으려고 야구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욕심도 많다. 그는 "시범경기보다 시즌 때 첫 안타, 첫 홈런, 첫 도루를 기록하고 싶다"며 눈을 반짝이고는 "시즌에 돌입하면 9개 구단이 kt를 잡으려 들어올 것이다. 그 점을 역이용해서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부진 각오를 전했다.

마산 |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트위터 @hong927

■ 취재파일

'롯데야구단 CCTV 사찰' 변죽만 올린 인권위 발표

'롯데야구단의 CCTV 사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핵심 조치는 롯데야구단에 대해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지가 답일 텐데 인권위는 왜 변죽만 올렸을까.

스포츠동아는 11일자에 인권위의 '롯데 야구단의 CCTV 사찰'에 관한 조사 결과 발표 내용을 단독 입수해 보도했다. 전 국민적 관심을 끄는 사안인지라 인권위는 11일 오전 기자회견에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가 밝힌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사건 당사자인 롯데가 아니라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에게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선수들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권고를 한 것은 인권위가 수사기관이 아니고 조사기관이기 때문이다. 무소불위의 권고를 내릴 순 없다. 롯데에 권고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원칙상 못하는 것이다. 규정상 사기업이나 개인에게 권고를 할 수 없다. 사건을 축소시키려는 게 아니다. 이번 발표로 사건은 끝난 게 아니다. 개인정보보호법 65조 위반에 의거해 고발 권한이 있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인권위 결정문을 완성한 뒤, 공문 발송을 시행할 것이다. 다만 너무나 언론의 주목을 받고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인지라 '팩트'를 먼저 알기기로 판단한 것이다. 일종의 중간발표인 셈이다. 여자축구선수 박은선 선수 인권침해 때도 결정문을 완성하기 전 미리 발표가 나갔던 전례가 있었다. ▲행정부에 롯데 야구단의 고발을 권고하는 '원안'은 없었다.

그러나 인권위가 밝힌 내용에 대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왜 사건 발표와 후속 조치를 한꺼번에 안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11일 인권위 발표는 '롯데 야구단이 인권침해를 했다'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내용을, 롯데가 일찌감치 인정하고 사과한 내용을 인권위가 재탕한 수준이다. 정작 인권위에 기대한 일은 '인권침해를 저지른 롯데야구단에 대해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지를 권고하는 일'인데 이것은 뒤로 미뤄놓은 것이다.

인권위의 추가 조치에 관한 배경을 놓고도 심 의원의 의견은 다르다. "의원실에서 (인권위 발표를 앞두고) 11일 아침 강력하게 항의했다. 그러자 인권위 정책파트에서 '이게 전부가 아니다. 추가적 보완을 하겠다'고 말을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왜 인권위의 발표가 이 수준에 그쳤는지, 여기에 롯데그룹의 영향력은 없었는지에 관한' 후속적 문제제기를 약속했다.

인권위는 자신들이 밝혔듯이 곧 행자부 장관에게 인권위 결정문을 공식 발송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다. 심 의원 측에서 제기한 것처럼 이번 결정 과정에서 롯데그룹의 영향력이 없었는지에 관한 의문점도 속 시원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한편 인권위 발표 직후 롯데 야구단은 11일 또 사과문을 냈다. '롯데 사태'가 터진 뒤 6개월 동안 3번째 사과문이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트위터 @matsri21

편집 |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트위터@sadzoo



시범경기 개인 1호포자 팀의 첫 홈런. 그 주인공은 kt 김사연이었다. 김사연이 11일 마산구장에서 열린 NC전에서 박민석을 상대로 좌월 솔로포를 쏘아 올린 뒤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마산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트위터@bluamarine007

염경엽 감독 "5번타자 김민성 100타점 가능"

쉽게 안주는 타자로 못해도 80타점 기대
득점 기회 살리려 스나이더와 타순 바꿔

"김민성(사진)은 올 시즌 100타점도 가능하다고 본다."

넥센은 올 시즌 강정호(28·피츠버그) 없이 야구를 해야 한다. 지난해 역대 유격수 최초로 40홈런을 돌파하고 타율 0.356과 117타점을 올리며 시즌 MVP(최우수선수)급 활약을 한

강정호의 공백은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넥센 염경엽 감독은 당초 강정호가 빠진 5번 자리에 외국인타자 브래드 스나이더로 대체하려고 했다. 지난해 LG에서 한국야구를 접해 올해는 더 나은 성적을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스프링캠프를 거치면서 이 같은 구상은 바뀌었다. 김민성을 5번타자 승격시키고, 스나이더를 6번으로 내린 것. 둘의 타순을 교체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염 감독은 한파로 시범경기 두산



전이 취소된 11일 목동구장 감독실에서 이유를 설명했다.

염 감독은 "스나이더가 20개 이상의 홈런을 쳐주면 강정호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데, 20홈런 이상 칠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지금까지 봐온 바로는 당초 내 생각보다 삼진이 많을까봐 걱정이다. 우리는 4번 박병호도 그렇고 상위타선의 출루율이 좋아 1사 3루나 1·3루 등 5번타자에게 타점 찬스가 많이 간다. 여기서 계속 삼진이 나오면 팀도 팀이지만 선수도 스트레스를 받아 마이너스다. 6번에

둔 것은 편하게 치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염 감독은 "김민성은 쉽게 안 죽는 타자다. 작년엔 5번 강정호도 출루를 많이 해 김민성이 6번타순에서 주자 3루에 두는 상황이 많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겨낸 경험이 있다"면서 "올해 100타점도 가능하다. 못해도 80타점은 칠 것이고 90타점도 성공적이라고 본다. 기회가 왔을 때 해내면 김민성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그게 커리어가 된다"며 믿음을 보였다. 과연 김민성이 강정호의 공백을 메워주는 중심타자로 성장하게 될까. **목동 |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트위터 @keystonelee

승부는 가격이다!! 5,000원!!

가격만족(5,000원)·맛만족·영양만족 우마당 곤지암 소머리국밥 가맹점 대모집

우마당 곤지암 소머리 국밥의 경쟁력

- ✓ 옛날 전통방식 그대로 국물맛을 재현
- ✓ 소머리 국밥의 과학적인 조리 시스템
- ✓ 검증된 식재료와 간편한 조리 매뉴얼 제공
- ✓ 차별화된 레시피로 고객을 사로잡는 메뉴구성
- ✓ 소자본 소형 평수로 누구나 창업가능

줄서서 먹는 우마당 곤지암 소머리 국밥!!

소머리 국밥을 옛날 전통방식 그대로 재현하여 맛을 내고 레시피를 규격화 하여 간편조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방장 없이 소수의 인원으로 최대의 매출을 올릴수 있어 인건비 지출이 적어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획기적인 아이템 입니다. 평소 관계없이 누구나 창업이 가능해 최소한의 투자로 최고의 매출을 올릴수 있어 요즘 같은 불황에 안정맞춤 입니다.

안심 창업

요리에 자신이 없어도 식재료 보는 눈이 없어도 본사에서 다 알아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사업자는 **어려움 없이 쉽게 운영** 할 수 있습니다.

맞춤 창업

간판, 인테리어, 메뉴판 등을 지원해 주는 **업체최저비용**으로 입점변경을 실현, 무이자 대출 상담을 통해 실속 창업이 가능합니다.

창업 지원

본사의 전문 슈퍼바이저 파견으로 매출안정까지 지원을 약속하며, POS System 도입으로 수입과 지출 매출까지 관리해주는 운영체제를 갖췄습니다.

祝 송파 가든파라드 직영점 오픈

10호점 까지 간판, 매뉴얼, 전당, 매너, 에어간판 등등 무장지원!!

가맹점문의 1899-9501

www.woomadang.com 우마당소머리국밥 검색

우마당 곤지암 소머리 국밥은 성공 창업의 방향을 제시한다!

모듬수육

매운소갈비찜

매운돼지갈비찜

묵은지김치찌개

육백기불고기

장터국밥

육개장

만두국